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3

▶ 64회 예고
아쇼까는 충성하지 신하들을 살해하려고 라다굽따 수상을 불러 상의한다. 라다굽따는 신하들을 지방관리로 파견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아쇼까는 따를 수 없는 명을 내리고서 신하들이 거부하자 왕명거역죄로 모두 살해해 버린다.



아쇼까왕, 칼라따까에 환송연 베풀다

궁중연회장 문들이 오랜만에 열렸다. 연회장 내부의 모습은 몰라볼 만큼 완전히 새로웠다. 창문의 모든 커튼들은 코끼리 상아 같은 흰색의 비단 천으로 바뀌어 펄럭거렸다. 궁중연회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아쇼까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연회는 옛 까시국으로 떠나는 칼라따까를 위한 환송연이었다. 칼라따까는 아쇼까가 왕위를 잇는데 누구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신이었다. 왕궁 접견실에서 라다굽따와 칼라따까가 연회를 기다리며 담소했다.

"대왕님께서 연회를 지시하셨다니 감개무량하오."

"떠나는 수상님을 어찌 잊겠소? 너무도 당연한 연회지요."

"꿈을 이루고 떠나니 여한이 없소만 그래도 큰 걱정이 하나 있소."

"대왕님께서 옛 까시국 부왕으로 임명한 것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뜻이 아니겠소? 그러니 걱정은 내려놓고 앞으로는 인생을 즐기시구려."

"그런데 말이오..."

칼라따까가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무언가 안심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도리질을 했다. 라다굽따는 아쇼까가 왕위에 올랐으니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칼라따까의 생각은 달랐다. 라다굽따가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소?"

"수시마를 옹립했던 왕자들이 나를 비웃었다고 하오. 교활한 위인이 사라지게 됐으니 이제 자신들이 나설 때가 됐다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소.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말먹이꾼이 전해주었소."

"왕자들이 아쇼까왕을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불복하겠다는 말이군요."

"불행한 일이오. 수시마 부왕을 앞장서서 옹립하려고 했던 왕자 다섯 명을 제거했는데도 이러니 어찌 걱정하지 않겠소?"

라다굽따는 문득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수상의 지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부귀영화의 락슈미여신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구나 하고 행복했는데, 자신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파괴의 시바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쇼까왕이 접견실로 들어왔다. 아쇼까왕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바로 연회장으로 가자고 말했다.

"지금 가시죠. 내가 조금 늦었소. 다르마 대비님이 갑자기 오셔서 늦었소."

"연회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수상을 잊지 않을 것이오."

라다굽따와 칼라따까가 아쇼까왕 좌우에 서서 안내했다. 연회장에는 1백여 명의 사람들이 미리 와서 착석하고 있었다. 왕실 귀족과 관리들이 연회복과 모자를 쓰고 아쇼까왕을 맞이했다. 아쇼까왕이 입장하자 박수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궁중악대의 연주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아쇼까왕이 착석하자 그제야 연주가 멈추었다. 아쇼까왕이 연회장을 흡족하게 둘러보면서 일어났다. 연회장 분위기가 자신이 취향대로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빈두사라왕이 외국의 진귀한 수입품들을 좋아했던 반면에 아쇼까는 자국의 것들을 장려하고 애호했던 것이다. 아쇼까가 짧게 한 마디 했다.

"오늘은 칼라따까 원로대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 마음껏 만찬을 즐기기 바라오. 칼라따까 원로대신은 선왕에 이어 나까지 2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이오. 나는 마우리아왕국을 대표해서 칼라따까 원로대신에게 존경을 표하오. 감사를 표하오. 우리 모두 역시 칼라따까 원로대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쳐주는 게 어떻겠소?"

박수를 받은 칼라따까가 일어나 하객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런 뒤 건배를 제의했다.

"하늘의 신들이 찬탄하는 마우리아왕과 마우리아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궁중무희들이 무대로 나와 궁중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쇼까가 칼라따까에게 양해를 구했다.

"수상, 나는 이쯤에서 일어나야겠소. 어머니께서 와 계시오."

"저에게 잠깐이라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소. 무대 뒤에 내 방이 있소."

무대 뒤쪽에는 왕을 위한 비밀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연회 때 왕이 옷을 갈아입거나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보고를 받는 공간이었다. 칼라따까는 비밀의 방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직접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쇼까왕이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물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오?"

"왕정을 펴시는 데 일단 우환을 제거했지만 아직 위험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왕자들이오?"

"예,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무시해 버리겠소."

"잔불이 무섭습니다. 왕궁에는 그분들을 추종하는 귀족이나 하인들이 많습니다. 잔불은 언제든 큰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소, 그대의 충정을 잊지 않겠소."

"그들은 제가 떠나는 것을 두고 교활한 위인이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절대로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오. 잔불이 큰불이 될 수 있다는 그대의 충언을 명심하겠소."

아쇼까왕은 어금니를 물었다가 놓았다. 다섯 명의 왕자들을 제거한 것으로 왕실의 질서가 잡히리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이 방 밖으로 나가려다가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왕권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역모 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이라면 극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교활한 위인들이 있는 한 왕실은 늘 안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겠소. 편히 떠나시오. 나는 고름덩어리 같은 왕자들을 반드시 도려내고 말겠소."

아쇼까왕은 칼라따까의 말을 듣고 분기탱천했다. 칼라따까가 위로했다.

"친위대장에게 오늘 연회에 참석한 왕자들부터 소리 소문 없이 납치해 제거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왕명이오. 그렇게 하시오."

아쇼까왕은 독이 올라 망설이지 않고 허락했다. 아쇼까왕이 비밀의 방을 나가자 칼라따까도 연회장으로 돌아와 친위대장을 불렀다.

"대장, 잠시 내 옆에 앉으시오."

"예."

라다굽따 수상은 연회장을 돌면서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다. 칼라따까는 친위대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턱으로 왕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연회장에 있는 왕자들이 몇 명이나 되오?"

"열한 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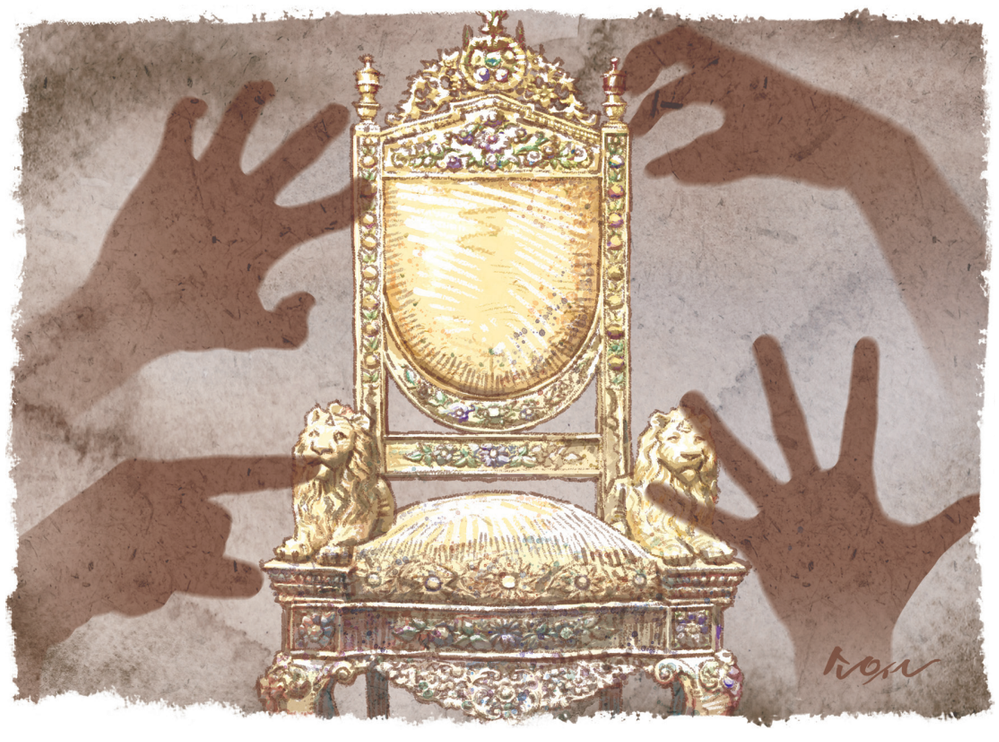
"연회가 파하면 그들을 미행했다가 납치해 우물감옥에 던져버리시오. 친위대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군사만 차출해야 하오."

"우물감옥 전옥들이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명이라고 하시오. 그래도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리시오."

"알겠습니다."

칼라따까가 일을 치를 때는 언제나 단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친위대장은 인정사정없이 일도양단하듯 일을 처리하는 칼라따까의 처신에 어떤 때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의 계책은 빈틈없이 용의주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다. 라다굽따가 불콰한 얼굴이 되어 칼라따까 자리로 오자, 친위대장은 일어났다.



그 시간에 아쇼까왕은 어머니 다르마 대비를 왕궁 다실에서 만났다. 아상디밋따 왕비도 동석했다. 꾸날라를 친아들처럼 키웠던 아상디밋따 왕비는 다르마 대비가 비가따쇼까를 낳은 뒤 산후 조리할 때도 마음을 다해 도왔던 자애로운 여인이었다. 궁녀가 짜이를 내왔다. 다르마 대비가 짜이 잔을 잡지도 않은 채 아상디밋따 왕비를 다실 밖으로 내보낸 뒤 말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십니까?"

"왕자 다섯 명이 사라졌습니다! 왕실이 흉흉합니다. 수시마 편에 선 왕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왕이 되셨으니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자비를 베푸는 성군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실의 모든 귀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마 대비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어머니께서는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 자들은 저를 제거하려고 선동했습니다. 수시마 형과 나 사이를 이간질했던 자들입니다. 수시마 형이 왕이 됐더라면 저는 그 자들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은 그 자들이 아니면 제가 죽어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왕이 되어 한 순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불행합니다."

"어머니, 저는 마우리아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통치를 자비심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역모를 꾀한 자나 왕권을 능멸한 교활한 자는 단호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운명입니다."

"왕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운명입니다. 공포보다는 자비롭게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륜성왕이 되어 영원히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다르마 대비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러자 아쇼까왕은 더 이상 대꾸를 않고 일어서서 나가버렸다. 아상디밋따가 들어와 다르마 대비를 위로했다.

"대비님, 왕께서는 누구보다도 외로우실 겁니다. 왕실의 모든 왕자들이 지금도 수시마 부왕님을 그리워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왕이 자비로워지기를 기도할 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구나."

"대비님, 저도 기도할게요. 함께."

"라다굽따 수상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연회중입니다."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수상밖에 없어. 그러니 사람을 연회장으로 보내 라다굽따 수상을 만나게 해줘."

아상디밋따는 하인을 연회장으로 보내 다르마 대비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라다굽따가 환송연이 끝나기 전에 왕궁 다실로 왔다.

"대비님, 부르셨습니까?"

"조금 전에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다굽따는 아쇼까왕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말했다.

"대비님, 폐하의 판단은 옳습니다. 지금은 화합하는 시기가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백성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왕자들이 사라지고 없으니 왕의 동생 비가따쇼까조차 왕궁이 무섭다고 합니다. 선왕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비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금도 왕에게 만류했지만 소용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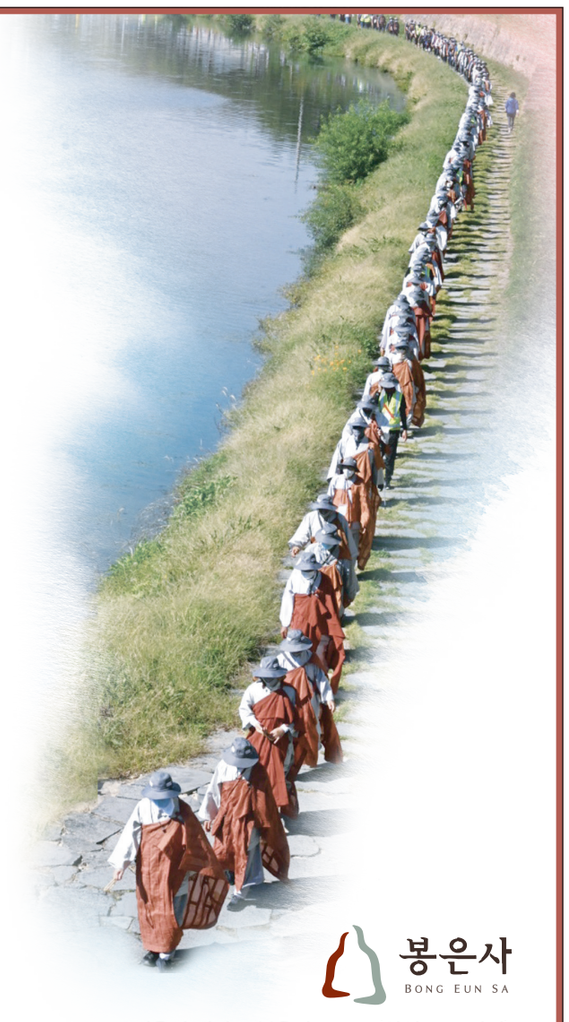
"내일 대왕님께 소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상께서 자비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다굽따 수상은 무거운 마음으로 왕궁 다실을 나와 연회장으로 갔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흥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왕자 몇 사람은 무대로 뛰어올라 무희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술에 취한 관리들이 크게 웃으며 떠들었다. 칼라따까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무표정해졌고, 친위대 군사들은 연회장 밖 숲속에서 연회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라다굽따는 연회장의 분위기에 다소 기분을 전환하여 칼라따까에게 술을 권했다.〈계속〉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